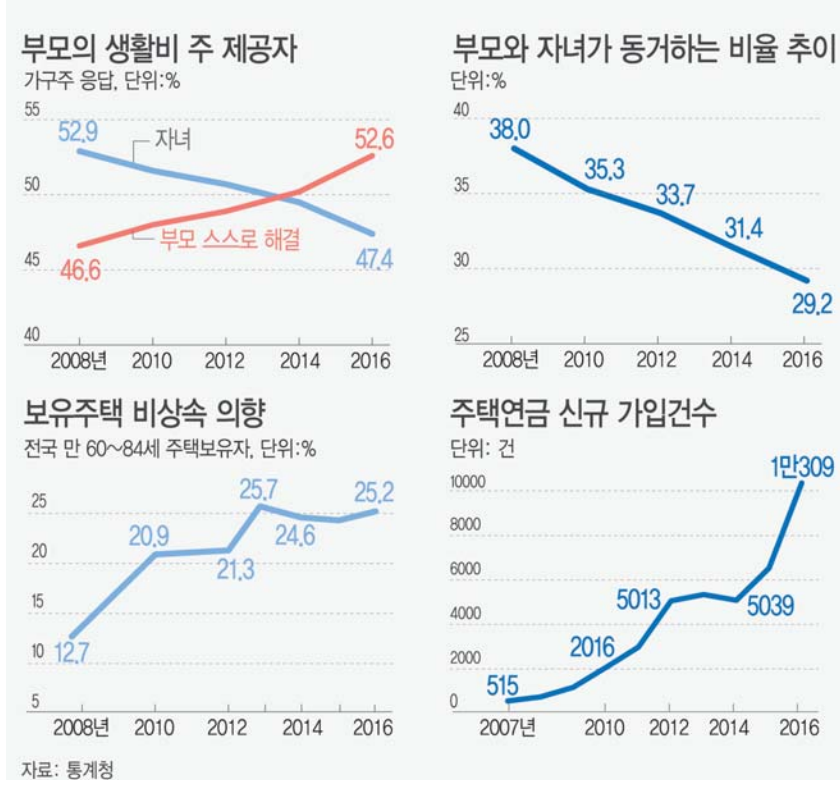


부모 세대 절반 “생활비 스스로 해결”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부모 세대가 8년 사이 2배 증가했다. 자녀들의 부모 부양도 줄어드는 추세다. 부모 세대의 절반이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었고, 10가구 중 3가구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통계청은 17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가구주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가구는 19.5%였다. 이중 노후 대책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가구는 45.3%에 달했다.

통계청, 가구주 나이 65세이상 19.5%
“자녀에 집 상속 안해” 8년새 2배 증가

가장이 은퇴하면 대체로 가구소득이 감소하게 되며, 지출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 생활비 부족에 시달린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되는데,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 비율은 66.8%로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소비지출 비율도 64.6%에 그쳤다. 66세 이상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6%보다 월등히 높았다. 노인 2명중 1명이 중위소득(소득 기준 50% 해당하는 값)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던 것이다.

반면 자녀들의 부모 부양은 줄고 있다. 부모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비율이 2008년 46.6%에서 지난해 52.6%로 6%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은 38.0%에서 29.2%로 8.8%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노인들은 소득은 부족해도

젊은층에 비해 축적한 자산은 많았다.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66.7%로 40세 미만 가구(32.5%)의 2배가 넘었다. 가계가 보유한 자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 실물자산의 비중도 82.0%로 30세 미만 가구(37.4%)의 2.2배나 됐다. 축적한 자산을 자녀에 물려주기보다 내 노년을 위해 쓰겠다는 인식은 커지고 있다.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25.2%로 나타났다. 노인 4명중 1명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8년 전(12.7%)보다 두 배 많아진 것이다. 자신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국가보증 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 가입자는 늘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건수는 1만309건으로 1년 전의 6486건보다 58.9% 늘었다. 가입자의 73.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우체국 예금 우수고객 초청행사 개최 전남지방우정청,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서 성료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14일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2017년도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초청 행사를 가졌다. 금번 행사는 그동안 우체국이 공적금융 역할과 고객자산 관리에서 대한민국 대표 은행으로 우뚝 성장하기까지 그 밑거름이 되어 주신 고객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80여명의 우수고객이 참석한 가운데 흥쾌걸 의하박

사의 건강 강의와 함께 팔레타, 통기타 공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전남지방우정청 김성철 청장은 “그동안 우체국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 덕분”이라면서 “광주·전남 38개 우체국은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공공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보해양조, ‘콜드브루’ 넣은 커피소주 ‘딸꾹다방’ 출시

지난 2015년 부러더 소다를 출시해 국내 탄산주 시장을 개척한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콜드브루(Cold Brew)를 넣은 제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보해양조는 술을 마시고 싶지만 알코올 함을 싫어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신제품 ‘딸꾹다방’을 준비했다. 술을 마신 뒤 나오는 ‘딸꾹질’, 여기에 현대인의 필수공간인 카페를 복고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다방’이란 단어를 더했다. ‘딸꾹다방’ 콘셉트는 커피에 취해 스크림에 먹는 꿀집커피다. 알코올 함을 줄이려 카페말라 안티구아 원두로 만든 콜드브루를 넣었다. 소비자 대상 사전조사결과 스토미한 향이 강한 카페말라 안티구아 원두가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택됐다. ‘딸꾹다방’은 단순히 커피향만 넣은 게 아닌 진짜 콜드브루 원액을 넣어 맛과 향을 살렸다. 콜드브루는 커피가루를 차가운 물에 장시간 우려내 쓴 맛이 덜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딸꾹다



방’은 알코올 도수 16.9%, 용량은 380ml다. 출고가는 1079.74원이며 강남과 홍대, 건대 등 수도권 업소에 우선 판매한다. 보해양조는 연간 1인당 커피소비량이 400잔이 넘는 정도로 커피를 사랑하는 한국인에 딱 맞는 소주라고 설명한다. 특히 유행을 선도하는 20~30대 젊은 여성들이 ‘딸꾹다방’을 찾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기기 갖고픈데 화장품 이라니”



X-mas 선물, 男女간 ‘동상이몽’

신세계백, 크리스마스에 각각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설문

올해도 연인들에게 가장 설레는 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최근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과 실제로 상대방에게 받은 선물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신세계백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한 달여간 회원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20~40대 남녀 고객 1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남성과 여성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장 받고 싶어하는 품목과 실제로 구매한 품목을 조사한 결과, 남성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품목은 화장품, 향수 등 기존 강세였던 선물을 제치고 소형가전이 3위에 올랐다. 소형가전이 3위에 오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블루투스 스피커, 커피머신 등 감각적이고 아기자기한 디자인의 다양한 소형 가전제품들이 많이 나오며 여성들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많이 활용하는 트랜드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남성들이 IT 상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품질 좋은 브랜드나 상품을 골라 선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여성 위시리스트에 화장품이 없는 이유는, 브랜드, 피부톤 다양한 색조리안 등 개인적인 선호도의 편차가 커 선물로 받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구매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반면 남성들은 캐시미어 니트를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 1위로 뽑았으며, 2위에는 화장품, 향수가 오르는 등, 최근 자신의 외모와 패션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의 증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가 나타났다. 신세계백 김예철 상무는 “남성들이 선호하는 패션의류·소품, 화장품과 여성들이 선호하는 머플러, 소형가전 등 크리스마스 선물 관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선물을 기획, 특가로 선보여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 특수를 선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위권에는 화장품이 포함되지 않았다. 선물로 받고 싶은 선물과 실제로 상대방에게 받은 선물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신세계백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한 달여간 회원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20~40대 남녀 고객 1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남성과 여성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장 받고 싶어하는 품목과 실제로 구매한 품목을 조사한 결과, 남성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품목은 화장품, 향수 등 기존 강세였던 선물을 제치고 소형가전이 3위에 올랐다. 소형가전이 3위에 오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블루투스 스피커, 커피머신 등 감각적이고 아기자기한 디자인의 다양한 소형 가전제품들이 많이 나오며 여성들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많이 활용하는 트랜드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남성들이 IT 상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품질 좋은 브랜드나 상품을 골라 선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여성 위시리스트에 화장품이 없는 이유는, 브랜드, 피부톤 다양한 색조리안 등 개인적인 선호도의 편차가 커 선물로 받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구매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반면 남성들은 캐시미어 니트를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 1위로 뽑았으며, 2위에는 화장품, 향수가 오르는 등, 최근 자신의 외모와 패션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의 증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가 나타났다. 신세계백 김예철 상무는 “남성들이 선호하는 패션의류·소품, 화장품과 여성들이 선호하는 머플러, 소형가전 등 크리스마스 선물 관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선물을 기획, 특가로 선보여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 특수를 선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난쟁이 Lotto 제 785회차 당첨결과 (2017년 12월 16일 추첨)

4 6 15 25 26 33 + 40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6	2,886,622,688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55	52,484,049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972	1,463,805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00,062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678,240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간: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 휴일인 경우 익일연일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